

# 이재명 대통령

제21대 대통령 선거

‘더 나은 사회’ 국민 의지 반영  
보수 정당 자멸 속 압도적 지지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. 이 당선인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.

이 후보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, 더 나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국민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. 12·3 비상계엄을 이겨낸 국민이 또 한 번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.

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9.4%로 집계된 가운데, 개표 초반부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80%가 넘는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.

특히 투표 종료 직후 나온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도 이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.

한국방송협회와 지방과 방송3사(KBS·MBC·SBS)로 꾸려진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(Korea Election Pool·KEP)는 이날 오후 8시 본투표 종료와 동시에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
이재명 후보가 51.7%, 김문수 후보가 39.3%,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.7%로 조사됐다.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·입소스·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. 오차범위는 95% 신뢰 수준에 ±0.8% 포인트다.

이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출발했다. 이 당선인은 비상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있었고, 비상계엄 이후엔 윤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앞장섰다.

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이 당선인의 승리는 선거 초반부터 높은 확률로 점쳐졌다.

특히 상대였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스스로 자멸했던 것도 이 당선인의 승리에 도움이 됐다. 계엄 때부터 지탄을 받은 국민의힘은 대선을 맞아 당내 경선,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등 과정마다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. 본선에선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끝내 단일화하지 못했다.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이 당선인을 비판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. 또 이 후보는 선거 1주일 전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관련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약재를 키웠다.

이 당선인의 취임식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4일 낮 12시에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. ▶관련기사 2·3·4·5·6면 노병하 기자

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.

연합뉴스